

건축하는 디자이너 디터람스, Part III

Dieter Rams, Designer als Architekt

글. 김성환 Kim, Sungwhan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München)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매일 저녁 일과 후,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방에 앉아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는 청년에게 공방의 일상을 공유하는 아버지와는 대화는 분명 다른 세계였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청년에게 공방을 물려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 여기서부터 이번에 이야기할 Vitsoe와 디터 람스(Dieter Rams)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림 1) Dieter-Rams 와 Niels-Vitsoe





그림 2) Otto Zapf

이 청년은 후반에 언급될 닐스 비트소(Niels Vitsoe)나 디터 램스(Dieter Rams)가 아닌 1950년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근처에서 공부하던 조용한 성격의 오토 자프(Otto Zapf)였다. 그는 대대로 공방을 이어온 가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공방 안에서 수많은 공구와 자재더미 사이에서 자라왔다. 그는 스스로 회고하기를, 아버지의 공방에서 나오는 먼지와 케케묵은 냄새가 싫어 고등학교 졸업 후 전혀 다른 전공인 물리학을 선택했다고 회고한다. 그렇게 시작한 물리학은 그에게 다른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 자연의 법칙을 숫자로 표현하는 학문이라 생각하는 그에게 물리학은,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가구의 수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공방을 물려받는 선택을 한다.

이 선택은 훗날, 독일의 디자인 역사에서 디터 램스가 전후 독일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계기가 된다. 독일은 1945년 전쟁에서 패한 이후, 혼란의 시기를 딛고 재빨리 경제를 일으키는 부흥의 시대로 돌입한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공장은 체제를 전환해, 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공급의 원동력에 디자인을 간과하지 않고 중요시했다. 당시 1950년대 이후에는, 독일 세 곳의 도시에서 디자인을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킨 디자이너들이 등장한다. 슈튜트가르트(Stuttgart)에서는 미스 반데 로에(Mies van der Rohe)의 제자 헤르베르트 히르쉐(Herbert Hirche), 울름 출신의 한스 구겔로트(Hans Gugelot), 그리고 바로 독일 에쉬본(Eschborn) 출신의 디터 램스와 오토 자프가 대표된다. 디터 램스와 오토 자프의 인연은 테니스로 시작한다. 평소 테니스를 즐겨하던 오토 자프가 운동을 자주 같이 하며 건축을 하는 로프 슈미트(Rolf Schmidt)의 소개로 디터 램스를 자신의 공방에서 만난다. 당시 이미 브라운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에게 관심이 있던 오토 자프는 알루미늄 레일을 기반으로 한 선반 가구를 만들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디터 램스는 그의 큰 그림과 아이디어에 놀라움을 갖게 되고, 함께 작업하는 것을 약속한다. 초반에는 재료를 다루는 법을 디터 램스가 전달하고,



그림 3) Dieter Rams와 606 Universal Shelving System

그의 정보에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심는 작업을 오토 자프가 담당하였다. 1957년 둘은 함께 쾰른에서 개최된 가구 박람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선반 가구들을 전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덴마크 출신의 사업가, 닐스 비트소가 이들이 가지고 나온 가구의 가능성을 알고, 정식 사업을 제안한다. 1959년 이후, 디터 램스와 오토자프는 10년여간을 같이 하면서, 'Vitsoe + Zapf'를 독일의 대표 디자인 회사로 성장시킨다. 시장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가 항상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토 자프는 당시 회고하기를,

“당시 브라운에서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디터 램스는 제가 준비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건축적인 안목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알루미늄 레일을 기반으로 선반 시스템을 가진 가구를 제안했을 때, 그는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까지 이 시스템을 놓지 않고 있었죠”

라고 이야기한다. 10년여의 기간이 그들에게 경쟁관계였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 1969년 그들은 다시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오토 자프는 미국시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¹⁾

1960년대 디터 램스는 오토 자프와 함께 공유하던 작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선반 시스템을 지속하여 개발했다. 이에 Vitsoe는 단독으로 '606 Universal Shelving

1) 이후 그는 Knoll International의 대표 디자이너가 되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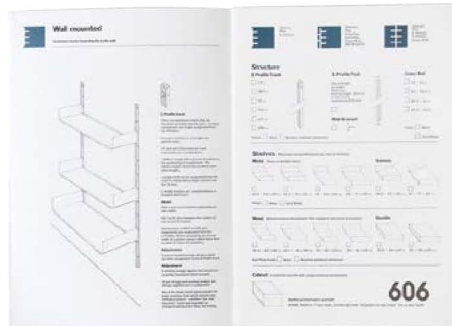


그림 4) Neville Brody Vitsoe 606 booklet details

System'과 '620 Chair Programme' 그리고 '621 Table'을 디터 람스의 디자인으로 판매하여 런던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의 디자인이 큰 성공을 거두자, 브라운 형제는 그의 작업과 Vitsoe를 더욱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브라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의 가구와 좋은 호흡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게 되었다.

우선, 가구들이 가지는 유연성이 큰 장점이 있었다. 1960년대 당시 Vitsoe는 '606 Universal Shelving System'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선반 레일의 두께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었다. 쉽게 벽에 걸수 있고, 같은 모듈이라도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뉴욕의 MoMa, 뮌헨의 Pinakothek 등에서는 이미 미술관 연구 소장품으로 전시하고 있다. IKEA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시작은 Vitsoe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상업적인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지난 5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다양한 요구는 언제나 일어난다”

디자인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디터 람스가 언급한 실용성의 맥락에서 아름다움과 상업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디자이너는 디터 람스의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하나의 고집은 중요하지만, 그 고집이 어느 순간 모두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토 자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을 때, 디터 람스는 디테일에서 오는 제품의 가능성을 고민했을 것이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그림을 그려내고, 그림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술을 탐구한다. 그의 탐구를 만족시키는 디테일을 만들고, 삶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